

CULTURE & WORLD VIEW

글로벌 사회 속 아프리카의 동반 성장

2024 SEPTEMBER 다문화

장훈태 (아프리카미래협회 및 아프리카미래학회 회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Th. M./Ph. D.)을 졸업했으며, 백석대학교 선교학 교수를 지냈다.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와 개혁주의생명신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아프리카미래협회 및 아프리카미래학회 회장, 한국칼빈학회 회장이다.

2022년 이후 아프리카 대륙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난민 유입, 서아프리카 쿠데타 벨트(Coup Belt) 형성을 비롯한 많은 충돌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4년에는 아프리카 대륙 20개 국가에서 다양한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를 통한 정부의 변화는 각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희

망적인 소식이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아직 먼 이야기다. 아프리카 대륙의 글로벌 사회의 동반 성장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요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인식

세계 인류는 1900년까지만 해도 빈곤의 늪에 살았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생산력의 내재적 한

1) 이 글은 2024년 6월 22일 아프리카미래학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발표 후 〈아프리카와미래〉4호에 게재될 것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계가 아닌 생산력 과잉이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계는 빈곤국과 부유한 국가로 양분화되어 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빈곤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은 집권자들의 장기 독재와 휘몰아치는 기후 변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 세계가 경제적 공황에 휩들어할 때 패권 국가가 흔들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중국은 자원 지대를 필요로 했고, 1995년부터 아프리카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중국이 국가이익을 위해 벌이는 아프리카의 자원과 인력 찬탈은 아프리카 국민들을 더욱 빈곤에 허덕이게 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또한 무기·곡물·석유·천연가스의 수출과 군사적 지원을 앞세워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 대부분은 불안정한 자신들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적 잠재성이 커지고 있는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러시아의 요구사항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선호했지만, 군부 쿠데타와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등으로 불안정한 사회구조로 변화하면서 지정학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러시아의 역 모델을 활용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다.

서아프리카를 비롯한 대륙에 확산되는 테러와 빈곤, 가뭄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다.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 경제적 침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테러는 일상화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정부 감정은 군부에게 쿠데타를 정당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정부

를 통해 국가 변혁을 기대하던 국민들은 쿠데타에 박수를 보내다가 삶의 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또다시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는다. 정부와 군부의 교차 통치가 국민 생활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기후 변화에 따른 사헬 지역의 생태 변화와 엘니뇨로 식량 생산마저 감소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이해는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프리카가 쿠데타와 테러, 이슬람교의 확장, 난민과 빈곤, 가뭄과 기후 변화, 젊은 인구의 팽창과 교육에 관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에서 동반 성장을 위한 방안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쿠데타와 내전은 대부분 기아나 질병과 중첩되어 인간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식량 생산을 위한 정책 판단과 분석, 농업기술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 해법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에 답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는 첫째, 아프리카 대륙과의 상호관계 협력, 한국기업 인프라 구축, 한국기업의 건설 참여와 적극적 지원이다.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과 공여국이 추구하는 상호이익 또는 상호협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고실업률 감소와 전기 및 물 공급의 원활화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무상원조는 협력관계 또는 상호이익 증진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둘째, 아프리카 대륙에 생산되는 원유 정제기술, 지하자원 활용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특히 원유를 가공 처리하는 정유공장 확충은 인력 수급과 전기를 비롯한 산업 발전에 유익하다. 셋째, 아프리카 대륙 각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공여국에서 교육과 학의료, 신학과 선교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을 지원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넷째, 아프리카 국가별 맞춤형 개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한국의 연구진 파견과 아프리카학 연구자를 비롯한 장기 체류 교민, 선교사들과의 긴밀한 정보교환과 활용이다.

아프리카 대륙이 발전하고자 한다면 막스 베버(Max Weber)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정신’을 아프리카 대륙에 교육해야 한다. 아프리카인에게 성경적 재물 활용법(빌 4:11; 딤후 6:17-18; 약 5:1-5)을 비롯한 자본주의 정신을 교육하는 일은 한-아프

리카의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정신은 탐욕의 철학이나 단순한 처세술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독특한 윤리를 말한다. 자본주의 정신은 윤리적 색채를 띤 생활 영위의 격률(格律)이다. 이들을 향한 자본주의 정신교육은 한-아프리카, 그리고 교회와의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 주요한 토대가 된다. 자본주의 정신은 아프리카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파괴되고 사회조직 내부까지 자유로운 영리활동으로 치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과 함의를 통한 합리적인 경영방식으로 동반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을 소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아프리카 내의 윤리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 규범, 부여적인 일정한 생활양식, 즉

‘전통주의’라 부를 수 있는 관점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 둘째, 토착 종교 혹은 이주 종교(移住宗教)의 강력한 종교적 규율과 관습이 자본주의 생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빈곤 지역의 무상교육과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연금제도, 지역교회를 통한 협력 개발 등이 긴급하게 요구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계 교회의 지도자 혹은 선교사들은 특수한 지역의 다양함과 복잡성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과 사회학적 관점에서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이 어떻게 묘사되는가를 성경적 분별력을 갖추고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을 기독교 정신으로 연결하여 보다 창의적이면서 긍정적 사고를 갖도록 하고, 경제와 삶의 질 향상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행동으로 보이도록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때 소셜 네트워크를 교육과 신앙 증진에 활용한다면, 자본주의 정신 제고에 역동성을 갖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 미래에 대한 시각 전환의 필요성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생각과 정체성은 식민지 시대와는 많은 변화가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식인들이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영역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아프리카 지식인들이 자신들만의 영역 주권을 주장하는 것을 경청하고,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과거 시각에서 현실주의로 전환하여 ‘아프리카 대륙 영역 주권에 대한 성장 과정’을 교망하고, 혁신 수용, 협업 촉진, 평생학습에 전념, 회복력과 단결 옹호에

대한 외침을 보고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 특히 동아프리카 국가, 사헬 이남의 쿠데타 벨트가 형성된 국가와 나이지 강(Niger River) 주변 국가들 역시 삶을 변혁시킬 수 있는 기술의 잠재력이 있다. 이들 지역의 국민들은 항상 혁신에 대한 희망과 약속, 충분하고 적절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이 직면하는 일상적인 도전 사이의 극명한 대조에 의해 촉진된다.

글로벌 사회 속 아프리카의 동반 성장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희망으로 다양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가겠다는 심오한 결심을 가질 때 시작된다.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변화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어젠다 2063’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 내의 변혁에 대한 갈망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사회 속 동반 성장은 불가능하다.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 국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정부는 아프리카 대륙 국민들의 삶의 수준에 맞는 일정한 틀과 뼈대를 가지고 협력·상생해야 하고, 교회는 영적 차원에서 거룩한 공유지(Divine Commons, 겔 45:1-25)의 역할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아프리카 대륙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계획으로 영구한 도성의 아름다움을 자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이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으로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정책과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실행과 의미 있는 영향, 협업을 통한 접근 방식이 있어야 한다. 아프리카인의 강점과 통찰력을 활용하여 이니셔티브가 현실적이고 커뮤니티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되면서 변화하도



록 한다. 무엇보다 토착 종교와 이주 종교로부터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제자 됨의 영성을 강화함으로 창조 섭리에 응답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다.

곧 첫째, 아프리카 대륙의 시장의 힘에 의해 직접적인 경험과 실질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취약성 및 목표에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일이다. 둘째, 삶의 질을 변혁할 수 있는 정책은 더 풍부한 관점으로 개발되도록 함께 한다. 셋째, 협력을 통한 혁신을 장려하고, 자원 사용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개발과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수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일이다. 넷째, 아프리카인의 수

학 지식 부족을 극복하고 공학 및 과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실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다. 다섯째, 아프리카 상황에 맞는 혁신과 솔루션을 위한 기회를 연다. 여섯째, 아프리카 내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감과 겸손으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 구축, 양질의 기술교육과 영적 양육교육에 대한 투자, 데이터 기반 정책 입안 촉진, 데이터에 대한 개방형 액세스 촉진, 유엔과 국제 NGO의 참여 장려와 필수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사회 속 아프리카와 동반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여정은 국가의 정치 지도자, 정책 입안자(기획처), 교육자, 엔지니어, 건전한 교회의 성직자 그룹의 노력이다. 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은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통합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글로벌 사회의 핵심은 공동의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구호 “함께”를 강화하면서 함께 미래 역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아프리카 대륙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식민주의적 사관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경제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와 동행하는 모습,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인 스스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지상명령(마 28:18-20, 16:15; 롬 16:26)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회와 선교사 역할과 책임이 크다 하겠다.

아프리카를 향한 소망

2024년 6월 4~5일 양일간 한국에서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총 48개국이 참석하였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외에도 분야별로 다양한 회의 통상, 교육, 의료, 건설 등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이 논의되어 ‘넥스트 아프리카(The Next Africa)’에 대한 기대를 더하고 있다. 한-아프리카의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물론 기독교계 역시 경제적 진출과 함께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 입안과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아이디어를 교계가 참고하여 교단별 아프리카 선교 정책을 위한 입안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 역시 아프리카 주요 교단장과의 서밋

(summit)을 개최하여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과 동등하게 거룩한 공동체에 젊은이들을 초대하고, 거룩한 도시계획 구축, 글로벌 바이블리더십 포럼, 한국 교회 방문과 축산과 농업기술 이전을 위한 인재개발과 파견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 교계가 아프리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보다 많은 사회 및 정부 문제를 다룰 때 성경적 가치와 세계를 위한 동반 성장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changhotsan@gmail.com